

다산포럼

그런 한 사람 보고 싶다



김정남 언론인

지난 설 연휴 때 충북 제천의 청풍호 주변 산골마을에서 며칠 묵었다. 내가 그곳을 좋아하는 것은 뒤쪽으로 호젓한 등산로가 나 있어, 그 길로 별로 높지 않은 능선 길을 따라 저 멀리 청풍호를 내려다보는 풍경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길은 숲 속 오솔길로 시작해서, 바위를 타고, 산하리를 돌아 능선 길에 오르도록 되어 있다.

내려간 이튿날 새벽, 나는 늘 하던 대로 그 길을 찾아 나섰다. 허나, 길은 꽤나 깊은 눈으로 덮여있었고, 아무도 그 눈을 밟고 지나간 사람이 없었다. 과연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걱정되었다. 원래부터 길이 희미했던 데다 그런 길마저 눈에 묻혔으니, 나 혼자 길을 찾고 또 길을 내면서 가야 했다.

용기를 내서 눈 위에 발자국을 내면서 갔

다. 내가 길을 잘못 내면, 뒤에 오는 사람 역시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한발 한발이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가는 길이 미끄럽고 때로 험했지만 그렇게 두어 시간의 고생 끝에 능선에 올라 얼어붙은 청풍호를 조망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길을 내고, 또 내가 올랐던 발자국을 따라 거꾸로 내려오면서 나는 백범이 즐겨 읊었다던 이 시가 생각났던 것이다.

“踏雪野中去 눈 밟 속을 가더러도 / 不須胡亂行 함부로 걷지 마오 / 今日我行跡 오늘 내 발자국이 / 遂作後人程 뒷사람의 길이 될 지니”

내가 이 시를 처음으로 만났던 것은 1970년대 초반, 백기완의 백범사상연구소에서였다. 비상사태와 유신정변이 몰아치는 와중에서 백범사상연구소는 당대의 협객들이 모여 울분을 토하고, 고담준문을 나누는 장소였다. 어느 날 백기완이 보여주는데, 명함판 크기의 백범 사진 옆에 백범의 친필 만년필 글씨로 이 시가 적혀있었다.

거기다 “백기완군에게 준다”라는 말까지 쓰여있는 것이 아닌가. 백범의 친필 글씨를 사진과 함께 직접 받은 백기완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다. 우리는 그 후 백범이 붓글씨로 쓴 같은 내용의 휘호를 복제해 나누어 가졌다. 한 쪽은 표구해 집안에 걸어놓고 들

고 나머지가 시가 주는 그 깊은 가르침을 되새기곤 했었다.

그때 우리는 이 시가 서산대사의 작품인 줄 알았다. 이 시가 서산대사의 것이 아니라 조선조 정조·순조 연간의 문인 임연당(臨淵堂) 이양연(李亮淵 1771~1853)의 작품이라는 것을 안 것은 그 뒤의 일이다. 한문학자 안대희 교수에 따르면 이 시가 이양연의 시집 ‘임연당 별집(別集)’에 실려있는데, “대동시선(大東詩選)”에도 이양연의 작품으로 올라 있다고 한다. 백범의 휘호에서 1행의 답(躡)이 천(穿)으로, 3행의 금일(今日)이 금조(今朝)로 되어있는 점이 다르다.

과연 이 시는 불가의 선미(禪味)보다는 수기(修己)를 강조하는 유가(儒家)의 자제(自戒) 풍모가 더 짙어 보인다. 그러기에 이 시를 백범 같은 이가 당신의 좌우명이자, 자경문(自警文)으로 삼았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 시는 혼자 있을 때조차 몸가짐을 삼가야 한다는 신독(慎獨)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 시 앞에 서면 스스로가 괜히 엄숙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관련하여 3부의 요직을 담당할 이들의 과거 행적이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바 있다. 공직을 맡는 사람이야말로 “눈 밟 속을 가더러도 함부로

걸지 않은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백이면 백 그 모두가 함부로 걸은 사람들뿐이니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 걱정이다.

법치주의를 말하면서 법을 운용하는 총리, 장관, 실장들이 하나같이 위법, 탈법, 편법을 일삼았으니,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더러 무슨 명분으로 바르게 걸라고 말할 수 있으랴. 친편일몰로 모두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통탄할 일이지만, 함부로 걸지 않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우리를 더 참담하게 한다.

옛사람은 그 자신이 바르면 령(令)이 없어도 바르게 되고, 그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령을 내린다 해도 따르지 않는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공직부패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행정연구원의 조사결과가 아니라도, 이미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대통령 자신이 경박한 행동거지로 독도분쟁을 자초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 그가 이끈 정부가 경박한 위에 부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눈 밟 속을 가더러도 함부로 가지 않는 사람, 흙로 있더라도 스스로 삼가할 수 있는 사람, 그 스스로가 바른, 그런 한 사람을 보고 싶다.

社說

잇따른 청소년 패륜범죄 대책은 없는가

고교생이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후배와 공모해 부모를 살해하려 하는 등 패륜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범죄 자체가 10대 청소년들이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청소년들의 존속범죄는 가족간 대화 단절과 무관심, 물질이거주의가 광범한 사회 분위기에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어 가족공동체 복원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난 24일 광주시 광산구에서는 부모의 부부싸움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고교생 이모(17)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해 5월 목포에서는 보험금을 노리고 후배와 함께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려 한 김모(19)군이 존속살인미수혐의로 구속됐다. 김군은 후배인 이군과 공모, 부모가 잠든 사이 이군을 출입문으로 들어오게 해 벽돌로 부모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 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단순하면서도

폭력적인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부부싸움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후배와 짜고 잠든 부모를 죽이려 한 것은 평범한 10대의 모습이 아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일이다.

문제는 이런 존속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경찰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존속범죄를 집계한 결과 2010년 27건, 2011년 33건, 2012년 34건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패륜범죄의 증가는 물질주의와 IT기술 발달로 가족간 대화가 단절되면서 가족체현상이 심화된 탓이다. 붕괴된 가정의 복원이야말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학교나 가정에서 가정조절이 안전치 못한 청소년들에게 이군을 출입문으로 들어오게 해 벽돌로 부모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 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단순하면서도

끝없는 돼지값 폭락, 축산기반 흔들린다

돼지 값이 끝없이 추락하면서 파동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최근 반년 사이 돼지 가격이 30% 넘게 급락해 농가 한 곳당 1억 원이 넘는 적자를 봤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남지역도 1000억 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약 6개월간 전국 한돈농가 6020곳의 적자 규모는 모두 6439억원으로 집계됐다. 농가 한 곳당 1억6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전남의 한돈농가수는 1037곳으로 적자만 1099억 원에 달한다.

돼지고기 값도 갈수록 떨어지면서 농가의 적자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kg당 평균 4139원에서, 올해 1월 3003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한돈협회 측은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양돈농가의 80% 이상이 도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돼지 평균 가격이 생산비의 66% 수준인 지역kg당 2857원에 머물며 두당 12만 원의 적자

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은 무엇보다 정부와 농협이 적정 사유육수 지도에 실패한 데 있다. 여기에다 돈육 수입량도 전달보다 34.7%나 급증해 돼지 값 폭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또 돼지 출하 가격은 밀바닥이지만 일반음식점 삼겹살 가격은 최고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소비부진의 결집돌로 작용하고 있다.

농협이 25일 가격 안정을 위해 종자돈 10% 감축 등 생산량 감축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가격 폭락에 대한 흔들림 없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단기적으로 적정 사유육수 유지는 물론 돈육 수입량의 조절에 나서야 한다. 삼겹살 개선을 통해 음식점에서 삼겹살 가격을 낮추도록 하고,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에 따른 원산지 단속 등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축산농이 붕괴되면 회복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교통칼럼

운전예절 이미지가 이제는 경쟁력



김홍근 광주교통방송 본부장

국내 자동차 보유대 수가 1900만대에 육박하고 있다. 인구 2.6명당 1대에 달할 만큼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교통문화를 바꾸자는 움직임은 꾸준히 전개돼 왔다. 그러나 '자동차문화' 측면에선 여전히 성숙하지 못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새해 들어 운전습관을 바꿔보자 해서 우선 과속 습관을 바꿔보는 중이다. 그동안 일주일에 두세 번 조찬모임을 직접 운전해서 갈 때 시간이 늦어 2순환도로에 들어서면 항상 시간이라 차량이 별로 없어 한가한 도로 사정으로 여김없이 과속하는 일이 많았다. 과속하지 않는 해결방법은 이전보다 10~20분 일찍 출발하는 걸로 해결한다.

운전 습치가 누구보다도 뛰어난다는 친구 집에서는 친구가 운전하는 것보다 장릉면허로 운전한 지 얼마 안 된 부인이 운전을 하면 자녀들이 아빠보다 엄마가 운전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안전하다고 해서 엄마의 운전을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운전을 오래 많이 했다고 해서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 어느 지역을 가 봐도 도로표양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본다. 그런데 그렇게 넓고 큰 도로가 넘쳐나는 차량으로 몸살이 날 지경인데 차량홍수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먼저 가려는 차량과 깜박이 없이 차로변경을 한다든지 앞의 저속차량을 비키라고 하이빔을 번쩍거리는 운전자를 본다.

사고가 나서 차량 밖으로 나오는 운전자를 보면 잘 생긴 젊은이, 예쁜 아가씨, 점잖게 보이는 아저씨, 회색 머리가 빛나는 나이 지긋하신 분 등 폭도담게 운전할 분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럴 때면 그 분들이 타고 있는 차가 불쌍해 보인다. 운전예절을 보면 그 사람의 기성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엿볼 수 있어서 과연 저런 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며 고개를 가로뜨게 된다.

운전예절이 바르면 장수한다고 한다. 반

대로 운전 중 스트레스를 받으면 1년씩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하니 도로에 가득 메운 운전자들이 기본 좋게 운전하면 남들에게도 장수에 도움을 주게 돼서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

도로에 나오면 먼저 기본을 좋게 하자. 그리고 나의 좋은 기분이 주위 차량에 전해질 수 있도록 운전예절을 지키자. 깜박이로 분명한 방향을 알려주고 전조등을 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다른 차량에 불편을 줬다면 바로 미안하다는 비사등을 보내준다면 차라니 창을 열어 손이라도 흔들어 준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운전모습이겠는가. 운전자가 보이지 않지만 자동차 운전의 이미지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

운전예절의 습관이 아름다운 이미지로 몸이 밴다면 생활에 큰 활력이 되어 가정과 이웃, 직장, 사회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재미나겠는가. 내 차가 중요하고 내 목숨이 귀하면 남의 차와 남의 목숨도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으면 한다. 도로에 나와서 남을 행복하게 하면 누구보다도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자.

앞으로 7년만 지나도 미래운전형태가 달라진다고 한다. 이미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조종사의 뇌에 칩을 넣어 조종간을 잡지 않고도 조종사의 생각대로 조종이 되는 시대가 왔다. 자동차도 운전자의 뇌에 칩을 넣게 되면 운전자의 생각대로 핸들을 잡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운전을 하면 자동차의 기능은 최첨단 전자장비로 변하고 있다. 이에 함께 발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준법정신과 남을 위한 배려감이 한층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자동차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운전습관이 바르면 기본 좋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광주교통방송의 율 한 해 슬로건이 '생명을 살리자'인데 운전예절이 바른면 귀한 생명 한 명이라도 더 안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운전예절의 이미지가 이제는 경쟁력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 '교통칼럼'은 광주일보와 광주교통방송의 업무 협약에 따라 실리는 칼럼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2주마다 화요일자 오피니언 판에서 교통 전문가들의 격조 높은 칼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고

빛가람도시의 첫 손님, 우정사업정보센터



이정록 전남대 교수·전 대한지리학회장

빛가람도시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첫 이전기관인 우정사업정보센터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3월 초에 입주하는 우정사업정보센터는 빛가람도시 조성사업을 시작한 지 7년 만의 첫 성과다.

LH가 중심이 돼 조성하는 빛가람도시의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733만㎡ 규모로 혁신도시 중에서 면적이 가장 크지만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만들고 있고, 나주시를 비롯한 인접한 지자체와 주민들이 적극 협조한 덕분이다.

2007년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은 그동안 우려곡절이 많았다. 이전기관들의 이전계획 비협조, 한전의 신청사 착공 지연, 일부 이전기관의 통폐합 등으로 순항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2011년 11월 한전의 청사착

공으로 건설사업은 탄력을 받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토지분양 실적도 비교적 양호했다. 현재 빛가람도시 조성사업은 순항중이다. 우정사업정보센터 첫 입주자 좋은 증거다.

우정사업정보센터 입주로 지자체와 관계자들은 바빠졌다. 국토부, 전남도와 나주시, LH를 비롯한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를 작동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나주시는 혁신도시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3월부터 시내버스를 운행한다. 경찰은 혁신도시에 이동과출소를 설치하는 치안대책도 마련했다. 그렇지만 세종시 사례처럼, 우정사업정보센터 직원들은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 뻔하다.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시설, 학교, 식당 등 생활편의시설의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편의시설을 갖추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다층스럽게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나주시는 혁신도시 인근에 원룸을 알선해 주는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유아 자녀입학을 위해 공립어린이집 정원도 증원하고 있다. LH는 내년 초 입주를 목표로 12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있다. 전남대학교청이 유치원과 초·중·고를 빨리 개교하면, 주거와 학교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현재

혁신도시의 상업용지, 근린생활용지, 단독택지를 매입한 사람들의 건축문의가 쇠들하고 있다. 불부터 건축이 행해지면, 마트, 식당 등 생활편의시설도 개선했 것이다.

지역사회는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지역경제에 미칠 효과를 주시하고 있다. 물론 직원수가 적기 때문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묘한 변화가 벌써 감지된다. 나주시청동 신축 원룸을 찾는 직원들이 많고, 광주 효천 2지구 신규 분양아파트에도 계약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우정사업정보센터 입주는 지역경제에 작은 변화를 줄 것이 분명하다. 2015년 한전이 입주하면 광주전남의 에너지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빛가람도시의 향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동력이다. 문제는 빛가람도시가 조기에 도시기능을 갖추는 것이다. 주거기능 외에 기업, 학교, 연구소 등 자족적 기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 이는 도시건설을 담당할 LH를 비롯한 유관기관만의 책무가 아니다. 중앙정부를 타가기 전에 지역사회가 빛가람도시 조기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빛가람도시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지역사회와 주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우정사업정보센터 입주는 빛가람도시가 '허허벌판'에서 광주·전남의 꿈을 담은 '상생의 도시'로 가는 길을 본격적으로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입주는 2011년 11월 한전지공식 이후, 혁신도시에 최대의 경사다.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우정사업정보센터와 직원, 가족들에게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첫 손님인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생명도시와 그린에너지피어를 지향하는 빛가람도시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적극 도와줘야 한다.

無等鼓

세계 최연소 입단(만 9살), 한국 최초의 9단, 타이틀 전관왕 3회 기록, 1994년 세계대회 사이클링리트 달성 등 '바둑황제' 조훈현이 걸어온 길이다. 영암 출신인 조훈현 9단의 바둑 역경은 그대로 한국 바둑의 역사이기도 하다.

조 9단은 1984년 9살의 이창호를 내제자(집안으로 받아들여 숙식을 함께 하며 가르치는 제자)로 받아들인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22년. 스승은 제자와 한 집에서 숙식을 하며 조련시켰다. 열한 살에 입단한 제자는 1994년 마침내 스승이 가졌던 모든 타이틀을 차지한다. 지난 2011년까지 스승과 제자는 310차례나 반상(盤上) 대결을 펼쳤다.

지난해 입단 50년을 맞은 조훈현은 인터뷰를 통해 제자에게 최고 자리를 내줬던 때를 회상하며 "저도 때리면 아프죠. 지면 아픕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제자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고 위안이 됐죠"라고 밝혔다.

소설 '동의보감'에서도 유의태는 스승이 가져야 할 태도를 몸소 보여준다.

반위(위암)에 걸린 스승은 "사람의 병을 다루는 자가 신체의 내부를 모르고서 생명을 구할 수 없으니 병든 몸이나 마 네게 주니 정신의 계기로 삼으라"는 내용의 편지를 제자에게 남기고 자진한다. 스승의 살신성인 덕분에 인간의 오장 육부와 인체 내부에 대해 공부한 허준은 훗날 어의(御醫)가 되고 당대 의술하며 가르치는 제자)로 받아들인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22년. 스승은 제자와 한 집에서 숙식을 하며 조련시켰다. 열한 살에 입단한 제자는 1994년 마침내 스승이 가졌던 모든 타이틀을 차지한다. 지난 2011년까지 스승과 제자는 310차례나 반상(盤上) 대결을 펼쳤다.

지난해 입단 50년을 맞은 조훈현은 인터뷰를 통해 제자에게 최고 자리를 내줬던 때를 회상하며 "저도 때리면 아프죠. 지면 아픕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제자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고 위안이 됐죠"라고 밝혔다.

소설 '동의보감'에서도 유의태는 스승이 가져야 할 태도를 몸소 보여준다.

사제(師弟) 대결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 업 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디지털팀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